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7. 주여 우리 무리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예배 드리고픈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작은 몸 동작 하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마음은 어둠의 세계로 곤두박질칩니다.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음을 덧입게 되어 일상을 회복할 때는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도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시대 한 공간을 살아가는 뜻 생명들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8. 시편19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정숙 선생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06. 내 맘이 낙심되며	다함께
성경봉독	I. 학 1:1-7	다함께
	II. 막 9:2-29	정옥영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하나님 자녀의 우선순위	최인환 선생
	II. 일상을 천상으로	김재흥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04.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주님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하루 하루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상도 꾸리기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회복을 도우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특별한 것, 뛰어난 것 없다고 불평하던 삶을 반성합니다. 욕심이었습시다. 이제 이 욕심의 보따리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日常)이 주님 뜻 받들므로 천상(天常)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가대 주최 예배	9월 기도의 밤
음악예배	인도: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하현철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동천	김필순	박혜경	진정숙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용진	임창선	배삼순	김성자

■ /밀/음/으/초/읽/는/글/

은 세상이 서로 돕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 가는데 왜 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말은 그냥 "구경한다"는 말과 아주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잔치 집에 갈 때도 "잔치 보러 간다", 그리고 초상집에 갈 때는 "상주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 아닌 "참여한다", "보살핀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잔치 집에 그냥 구경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일손을 거들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일입니다. 초상집 보러 가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상주를 위로하고 굶은 일을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자는 뜻이 담긴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는 것도 바로 이런 뜻으로 한 주일 동안 헤어졌던 교인들을 만나보고 그동안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이렇게 잔치 보러 가는 거나 초상집 보러 가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교회 예배는 꼭 짜인 순서에 따라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뿐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느라 일주일 동안 애쓰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애써 연습하느라 고생이 큼니다. 그렇게 애써서 주일날 한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평신도들은 일방적으로 암전히 앉아서 설교 듣고, 찬양 듣고 끝나면 돌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경건한 예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 13:35)라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도 없고 고귀한 마음씨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왜 살인과 전쟁으로 둔갑하는가

요사이 외국으로 나가 선교를 한다는 분들이 서로 자기 선전에 바쁘고 실적을 올리느라 물량 공세로 도리어 그곳 주민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서는 이런 한국인 추방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안

타갑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돈이나 전자제품 같은 몇 가지로 환심을 사는 건 절대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돕기만 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기운을 차린 다음에는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서로 돕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사이에 무슨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나라끼리, 집단끼리 싸우면서 교회 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자기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입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전쟁 같은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교세 확장을 빙자한 살인과 약탈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수 천명씩 굶어 죽어 가는 어린이가 있다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까지는 기독교를 등에 업고 살인과 약탈을 일삼은 백인들의 잘못이 깊이 숨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런 기쁜 소식이 살인과 약탈로 둔갑하고, 핵무기가 판을 치는 전쟁이 왜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복음-기쁜 소식이란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귀머 사람에게 귀를 열게 하고 병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앓은뱅이를 일어서 걷게 하는 사람다운 삶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교회당이란 건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예배당이라 이름이 붙은 건물만이 예배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배보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 전부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聖)과 속(俗)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 짓는 것은 또 하나의 벽을 만들고 그래서 반목시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려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속되었다고 한 것이 오히려 성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성전이 협잡과 장사꾼의 소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섬기는 생활은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권위를 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절대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속박하고 힘으로 군림해 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 권정생

■ **마/음/으/로/읽/는/글**

비둘기

서울 성공회 성당에 사는 비둘기들은
수녀님들이 뿌려주는 과자를 배불리 먹고
붉은 벽돌 외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상 위로 날아가 된다
팬티만 입은 채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머리 위에 앉아 즐기도 하고
심심하면 똥오줌을 누기도 한다
심지어는 형겁으로 살짝 가린 예수의 거기에도
넵다 똥을 깔기기도 한다
예수는 온몸에 비둘기똥을 뒤집어쓴 채
날마다 바보같이 웃기만 하고
예수한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비둘기들이
아무리 봐도 꼭 나를 닮았다

- 정호승의 동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박옥식 한완식 임정자 이용한 오성희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오진훈 노순옥 안종일 정현주 김근종
 정옥영 김필순 박애순 김용진 최영혜 이봉옥 이영란 김 극 조문규
 진정숙 박옥순 이소순 이은옥 이유선 방극숙 김지윤 김지호 박정숙
 박홍엽 고광송 이춘희 노용래 김용원 길민수 최인환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최윤희 황경순 왕수명 박범희
 김남중 오복순 이희균 김영한 조항신 임 영 정경례 노미향 김승현
 김수진

감사헌금:

김종훈 안경숙 박옥순 김성길 방정자 박운양 고숙이 임고운 표명화
 무 명2

생일감사헌금:

최주환 이유선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최 희 영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중 원	이 형 속		이 형 속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속		이 영 옥
나 사 렷	백 혜 속	정 옥 영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 인도자회:**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교육부장회의:** 1시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3. **오후집회:** 성가대 주최 음악예배로 드립니다.
4. **기도의 밤:** 8일(수) 오후7시30분에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됩시다.
5. **심방:** 9월 7일(화)부터 속별 심방(화요일, 목요일)을 실시합니다. 김재홍 목사님과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시온(11시) 9일-갈라디아(11시), 갈릴리(2시) 11일-베들레헴(11시)
6. **교우 만남의 날:** 9월 19일(주일)에 청과교회의 옛 교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던 교우들을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위에 연락되시는 분들께 알리셔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7. **신앙실천:** 그동안 소원하게 지내던 분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던 분들이어도 좋겠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